

# 음식과 세계시민

김 강 석 / SBS-TV 편집부 차장

**남** 미 대륙 안데스산맥에 한국 라면집  
이 있다고 한다면 고개를 가  
우뚱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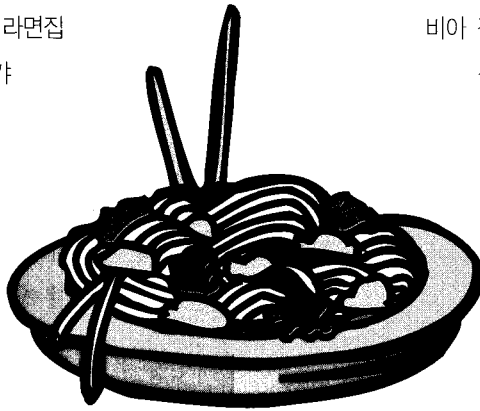
그런데 실제 페루 중남부 해  
발 3,399m의 고산에 있는 잉  
카제국의 옛 수도인 쿠스코  
(Cuzco)에 한국인 라틴동호회  
가 얼마전 라면가게를 냈다.

7년전 스페인어로 '친구들'이란  
뜻의 '아미고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진 이 동호회는 한국 문화와 음식을 알리기  
위해 남미여행을 하는 사람이면 꼭 들르는 이곳에 라면가  
게를 냈다고 말한다.

해외여행을 할수록 세계 곳곳에 우리 음식점이 들어서  
고 있음을 실감하게 된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집트 등  
아프리카에서 우리 불고기와 김치를 맛보는 일도 이미 오  
래된 얘기다.

해외여행 자유화나 세계화를 통해 우리는 세계시민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지만 우리처럼 아직도 우리 음식을 고  
집하는 국민들도 많지 않을 것이다. 실제 해외 여행이나  
체류 도중 2-3일 고추장이나 김치를 먹지 못하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정신이 몽롱해지는 경험을 해본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미국 필라델피아로 여행갔다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 나머지 폭우속 길을 잃고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  
면서까지 기어코 우리 음식점을 찾아간 경우를 비롯해 잠



비아 같은 극히 일부 나라를 빼고는 우리  
음식점을 찾아서 끝내 우리 음식으  
로 배를 채운 기억들로 가득하  
다. 그만큼 음식에서는 세계화  
가 더디다는 반증이다. 때문  
에 몇년전 미국이나 유럽 등  
지를 여행할 때 되도록 다른  
나라 음식을 체험해 보려고 애  
를 썼다.

스위스식 스파게티를 끝내 먹어내  
지 못한 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생선  
구이나 튀김류, 찜과 비슷해 맛있다는 이디오피아의 정식  
도 처음엔 잘 견뎌내다가 나중엔 맨손으로 먹는 방식을 이  
겨 내지 못하고 손을 들고 만 경우도 있다.

프랑스의 달팽이 요리나 스위스의 풍뎉 등 유명한 음식  
은 맛도 좋아 누구나 즐겨 먹을 수 있지만 그 지역의 독  
특한 음식은 사실 한두번 먹는 것으로 익숙해 지긴 쉽지  
않다.

그 나라의 음식은 그 나라의 오랜 전통과 문화를 반영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쉽게 다가가기 힘들지만 억으  
로 그 나라 문화를 제대로 알려면 음식을 거치지 않고서는  
얘기가 되지 않는다. 한술 밥에 배부르지 않듯이 가까운  
곳부터 살펴 보는 것이 좋을 듯 싶다. 타이나 베트남 음식  
점을 비롯해 하나 둘 씩 늘고 있는 외국 음식점을 가끔 들  
러 보는 것도 맛은 물론 그 나라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좋  
은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EPK**